

“의료 사각지대 해소...살맛나는 세상 앞장”

‘올해 목포시민의 상’ 조생구 목포한사랑병원장

불우 청소년·인재육성·아동복지시설 등 나눔 실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위한 현장공감 정책 시급”

“국내·외 의료 사각지대 의료봉사를 통해 건강권과 생명권이 존중되는 아름답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봉사의 천사’로 알려진 조생구(62) 목포한사랑병원 원장이 ‘2021년 목포시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돼 주목을 끌고 있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목포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원장을 지역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목포시민의 상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목포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선정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조 원장은 1999년부터 목포한사랑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지역 의료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불우 청소년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목포장학재단에 3천만원, 목포대학교 등에 수억여원, 목포 아동복지시설에 2천만원의 후원금을 각각 기탁했다. 아울러 2019년에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목포시는 다음달 1일 제59회 목포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 원장의 봉사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중학교 2학년 때 소아마비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친구의 등하교 길에 2년여 동안 가방을 들어주며 장애인들과 마음을 같이 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으

로 살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의사의 길로 들어서 의술을 통해 돕는 것을 배웠다.

조 원장은 “환자를 볼 때 의사가 모든 질병을 다 알 수 없기에 최종적으로 치료의 방향을 정할 때는 ‘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며 결정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쳤다”고 회고했다.

이어 조 원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개원 1주년인 2009년 부부와 자녀들을 초대하는 행사를 추진하다 신종플루로 모임은 못하고 인사장과 선물만 보내고 있다”며 “2006년에는 저

출산과 늦은 결혼으로 인해 출산을 하고 2개월 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직장에 복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2세 미만 아이들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맡아주는 영유아 전담시설을 준비해 열었으나 국가에서 허가해주지 않고 일반 유치원으로 개원토록 해 몇 년 운영하다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어 포기한 것은 안타깝기만 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적인 심각한 문제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인데 변죽만 울리는 탁상행정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실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를 시행하기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조 원장은 “힘이 닿는 대로 소외된 사람들과 소년소녀 가장, 조손 부모 자녀들, 장애인들,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겠다”고 환히 미소를 지었다.

조 원장은 목포시의사회회장, 목포YMCA 이사장 및 YMCA 전국연맹실행이사를 역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호남지회 출범

김동기 회장 “정보교류·제도 개선 역할”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호남지회(회장 김동기)가 27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회장 이운상)는 이날 서구 동양빌딩 19층 호남지회 대회의실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현판식에는 이운상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장(㈜유성 회장)과 김동기 호남지회장(하이랜드㈜회장)을 비롯해 김선관 부회장(㈜삼일산업 대표이사), 조정훈 부회장(㈜원포폴디앤씨 대표이사), 임완근 하이랜드㈜ 부사장, 이진숙 하이랜드㈜ 부사장, 이명규 교수(광주대학교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원장), 김덕은 변호사(법

무법인 민주로 대표 변호사·임대차분쟁 조정위원), 정병윤 사단법인 빛고을부동산 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운상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장은 “분양 서비스업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번 호남지회 개설이 지역 회원사 확대 및 본회와 호남지회 회원사 간 상호 협력을 적극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 정기총회에서 초대 호남지회장으로 선출된 김동기 회장도 “분양협회 본회와 호남지회 간 교류 뿐만 아니라 분양서비스협회와 부동산 개발협회간 정보교류 및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등에도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수희기자



전남대병원 노사 임단협 최종 합의

전남대병원과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남대병원지부가 지난 23일 노사협약 조인식을 갖고 2021년 임금단체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병원 행동동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조인식은 안영근 병원장과 보건의료산업노조 김혜경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최관중 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발전을 위한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를 다짐했다.

최종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대비 0.9% 인상 ▲필수교육(법정의무교육, 인증 교육

등) 이수자에 한해 교육휴가 1일 부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때 쉼원휴가 3일 등이다.

안 병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양보와 배려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감동 주고 신뢰 받는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에 김 본부장은 “올해 임단협이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을 이뤄가자”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전남교육청, 농산어촌유학마을 2곳에 도서 기증

전남도교육청은 27일 오후 화순 이서뽕모실유학마을에서 정책국장, 행정과장, 혁신교육과장 및 화순 이서뽕모실유학마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도서 기증은 전남교육청의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전남 학교로 전학 온 학생과 학부모들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자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행정자료실 자료 중 일부를 최근 조성된 농산어촌유학마을 2곳(화순 이서뽕모실



유학마을, 장성 편백숲 Wellness유학마을)에 마을당 1천여권씩 전달했다. /김동수기자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지난 25일 전북 익산시 신동 유기견 보호소에서 광주전남-전북 대학 RCY 단원 및 직원들과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유기견’과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학RCY 회원 간 다양한 프로그램 공유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

됐다.

참가자들은 유기견 보호소 실내 및 마당 청소, 유기견 케어 활동 등에 동참했다.

활동에 참여한 최유나 단원은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게 돼 보람찼다. 더 많은 분들이 상처 받은 동물들에 관심을 갖고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목포하당청소년센터 ‘중학생 교육 멘토링’ 호응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는 27일 “지난 3월부터 주 2회 이상 지속적으로 교육·복지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만든 교육봉사 동아리 E.V.O(Education Volunteer Organization)를 운영,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봉사동아리 E.V.O의 지속 봉사를 통해 교육 소외계층 대상자들에게 가교 역할을 잘 하고 있어서다.

교육봉사동아리 E.V.O는 목포영흥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주축이 돼 매주 센터를 방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에게 전할 수 있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위해 사전 강의 계획서와 지도안을 작성,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동부소방서, 무등산 산불·산악사고 예방 캠페인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지난 26일 오전 동구 중심사 일원에서 무등산119시민산악봉사대와 함께 산불 및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소방공무원 및 무등산119시민산악봉사대 20여명이 참석했다.

가을철 산불 예방 홍보, 등산객 안전 산행 지도, 등산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신고 요령 안내, 산불 예방 관련 홍보물품 배부 등의 활동이 진행됐다. 또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즐거운 산행을 위해 등산로에 있는 안전시설·표지판 정비 및 산림 정화 활동도 펼쳤다.

김영돈 동부소방서장은 “가을철 등산객 증가



로 산불 및 산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캠페인 등 안전 대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광주·전남 유일 생존 애국지사 김영남옹 별세



광주·전남 지역 마지막 생존 애국지사인 김영남 선생이 별세했다. 향년 94세.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지사는 1926년 화순에서 태어나 18살이 되던 1944년 7월 일본군 해병대에 강제 입대했다.

그는 독립항쟁을 결심하고 5명의 동료들 모아 병영에 불을 지르고 무기를 탈취한 뒤 탈출하려 했다가 발각돼 헌병대에 체포됐다.

결국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군 교도소 등에서 옥고를 지르다가 해방 후 1945년 10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이후 김 지사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중합학교 1기로 입대해 참전했다가 포로로 붙잡혀 탈출하는 등 여러 차례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10여 년간 군에 복무한 뒤 중령으로 예편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치매와 노인성 질환 등으로 광주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숨을 거뒀다.

빈소는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28일 오전 9시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오승기기자

광주대 출신 정지원 박사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선정



광주대학교는 뷰티미용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지원(33) 박사가 ‘2021년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B유형)’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정 박사의 연구 과제명은 ‘한국과 미국의 뷰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이며, 연구 기간은 2021년 9월1일부터 2022년 8월30일까지 1년이다.

2018년 광주대 일반대학원 뷰티미용학과 메이크업 전공 박사과정을 졸업한 정 박사는 미국에서 ‘Zombie Festival in LA’, ‘Womens EXP O in LA’ 등에 참여해 메이크업 프리랜서로 활동했다.

광주대 대학원에서는 지도교수의 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 ‘특수효과가 적용된 국내 4년제 대학의 특수분장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연구원으로 재직하 마 있다. /김동수기자



광주대, 인문학 강화 프로그램 ‘호응’

광주대학교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남구 진원작은 도서관은 지난 9일부터 총 4회에 걸쳐 ‘퓨전 인문학’(마술쇼와 함께하는 인문학·소통을 위한 얼굴경영·신동 방통 소통·희망과 평화마음 키우기)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원작은도서관은 지난해 (새작은도서관만드는 사람들과 KB국민은행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조성 사업에 선정, 유니버설 공간디자인으로 탈바꿈

했다.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에도 선정, 다양한 강자를 통해 지역민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진원작은도서관 관장 임형택 광주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교수는 “지역주민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웃음과 긍정의 마음, 감사와 위로를 받는 기회가 됐다”며 “도서관이 지역주민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공동체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결론

- 장태규·이양희씨 장남 효군, 이재환(광주서석고 2회 전 동창회장)·이향희씨 장녀 호정양=10월3일(일) 오후 1시 드래페웨딩홀 2층 CN홀. 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062-228-0000, 010-3627-4060.
- 권오윤(전남대 생명화학공학부 교수)·홍종옥씨 아들 휘정권, 오성권(대우전자 특판)·김현란씨 딸 민진양=10월2일(토) 오후 2시30분 광주시 서구 풍서좌로 제이아트웨딩홀 3층 페디스홀.
- 김형수(건설업)·이정미씨 아들 양희권, 조광석(베데스다요양원 원장)·정민희씨 딸 성은양=10월2일(토) 오후 4시 광주 서구 죽봉대로 위더스웨딩홀 3층 아모르홀.